



# < 조사개요 >

## 1. 조사명

- 2026년 2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## 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## 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※유효 응답 업체 252개체)

## 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## 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## 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## 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# 1 2026년 2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

■ **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70'**로 전분기(79) 대비 9p 하락. 이는 고환율, 중동 전쟁 등 대외환경 영향으로 지역 제조업은 체감경기 악화 전망

## ○ 2026년 2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70'

- 중동전쟁, 대미수출 관세 등 금번 대외 리스크는 기업차원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복합 요인들로, 지역기업의 체산성 및 향후 경영계획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역기업이 체감하는 경기상황이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됨
- 특히, 대미수출 관세 및 중동전쟁의 장기화 우려로 지역기업의 경영환경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2분기 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치(100)를 하회

## ○ 형태별 BSI는 1)수출기업 '64' , 2)내수기업 '71'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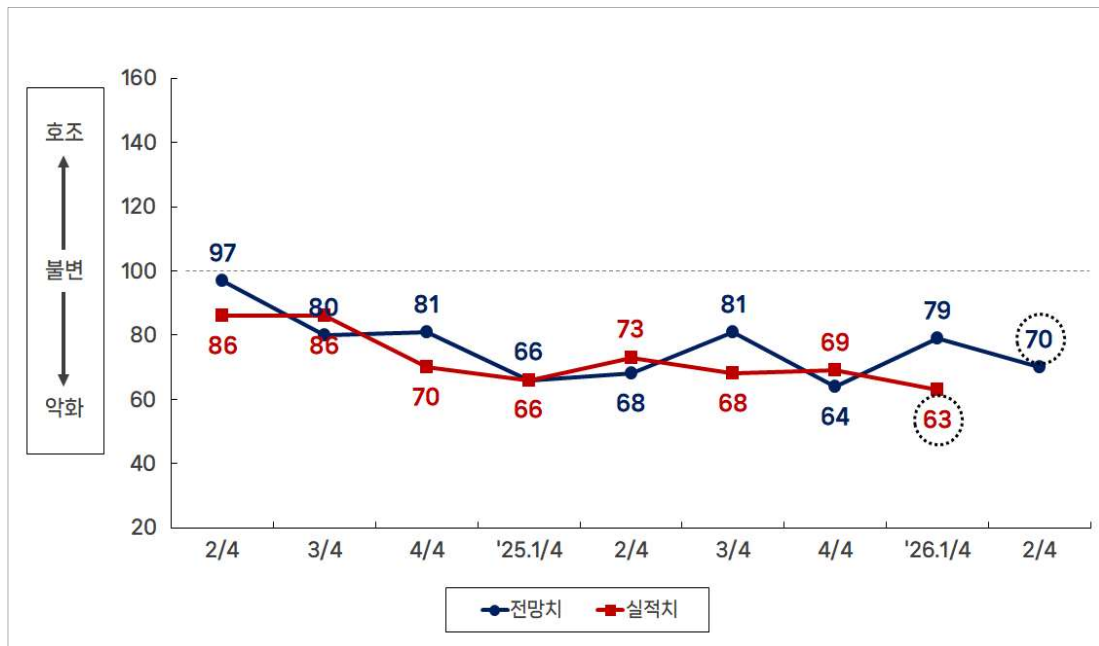
- 수출기업은 글로벌 관세정책 변동, 고유가,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하면서 전분기(74) 대비 10p 하락
- 내수기업 또한 원자재가격 상승, 소비위축 등 중동전쟁의 직·간접영향으로 인해 전분기(80) 대비 9p 하락

## ○ 2026년 1/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'63'

- 대외 리스크 요인 확산, 대미 수출 관세 장기화, 소비위축 지속 등으로 경기실적지수는 전분기(69) 대비 6p 하락

1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기업  
2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미만을 차지하는 기업

<최근 2년간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>



○ 2026년 2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

- 전분기와 경기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제조업체가 130개사 (51.6%)로 최다
- 반면, 2/4분기 경기부진 전망 업체는 99개사(39.3%)로 경기호전 전망 업체(23개사, 9.1%)를 크게 상회

< 2026년 2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23	130	99	252
구성비	9.1	51.6	39.3	100.0

## 2 경영 부문별 전망

■ 중동사태로 인한 물가상승 및 경기둔화에 대한 우려로 2026년 2/4분기 지역 제조업 매출(71) 및 영업이익(69)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5p, 6p 하락

### ○ 매출(71), 영업이익(69)

-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, 유가·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글로벌 리스크 요인으로 인해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분기 대비 부진 전망
- 또한, 소비부진 장기화와 해상운임 부담 확대로 2분기 매출·영업 이익 지수도 하락

### ○ 설비투자(68), 자금사정(69)

- 설비투자와 자금사정은 소비위축 지속과 고환율로 인한 투자비용 부담 증가, 높은 금리 수준으로 인해 전분기 수준 지속

### 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5.4/4분기	'26.1/4분기	'25.1/4분기	'26.2/4분기
체감경기	69 →	63	79 →	70
매출액	67 →	63	76 →	71
영업이익	65 →	63	75 →	69
설비투자	72 →	63	69 →	68
자금사정	60 →	63	72 →	69

### 3 주요 업종별 전망

■ 중동전쟁과 불확실한 미국 수출관세, 환율 변동 등 대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전 업종에서 기준치(100)를 하회

#### ○ 전기·전자(64)

- 전기·전자 제조업은 글로벌 소비위축, 원자재가격 및 해상운임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인해 전분기(121) 대비 큰 폭 하락하며 2분기 경기 악화 전망

#### ○ 조선·기자재(83)

- 전분기(110) 韓-美 조선산업 협력 체결로 지역 조선·기자재업 또한 낙수효과를 기대하였으나, 미국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이후 미국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지역 조선·기자재업도 경기 부진 전망 증가

#### ○ 자동차·부품(83)

- 환율 상승으로 인한 수출 수익증가 대비 해상운임 및 유가 상승, 원자재가격 증가 등의 비용증가 폭이 더 확대되며 기업 부담 확대되어 경기전망지수는 기준치(100) 하회
- 반면, 르노코리아의 3월 신차 출시로 인해 지역 자동차부품 제조업은 업황 개선 기대감이 확대되며 경기전망지수 하락폭 제한

#### 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5.4/4분기	'26.1/4분기	'26.1/4분기	'26.2/4분기
음·식료품	80 →	80	87 →	93
섬유제품	40 →	30	53 →	57
의복·모피	50 →	42	43 →	5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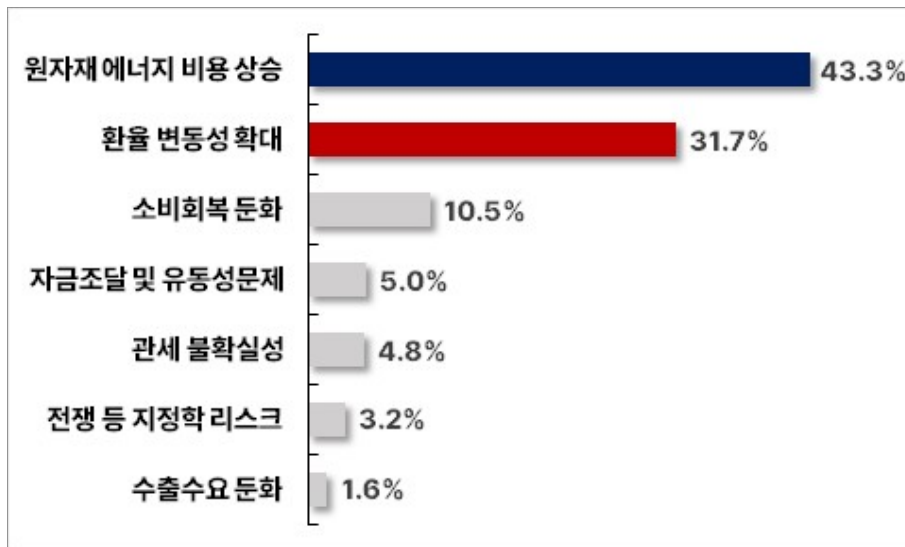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전망	
	‘25.4/4분기	‘26.1/4분기	‘26.1/4분기	‘26.2/4분기
신발제품	55 →	50	43 →	50
화학·고무	76 →	74	68 →	70
1차금속	48 →	52	64 →	72
조립금속	55 →	54	105 →	63
전기·전자	121 →	55	121 →	64
기계·장비	94 →	77	106 →	80
자동차·부품	70 →	93	90 →	83
조선·기자재	97 →	77	110 →	83

## 4

# 상반기 경영 리스크 요인 및 투자동향

- 상반기 지역기업의 가장 큰 리스크로는 ‘원자재·에너지 비용 상승(43.3%)’
  - 원유·알루미늄 등의 에너지·원자재가격이 중동전쟁으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상승함에 따라 지역기업 경영실적에 가장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
  - 이어 ‘환율 변동성 확대’(31.7%), ‘소비회복 둔화’(10.5%), ‘자금조달 및 유동성 문제’(5.0%), ‘관세 불확실성’(4.8%), ‘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’(3.2%), ‘수출수요 둔화’(1.6%) 등의 순
  - 특히, 3)환율은 원/달러 환율 기준 1,500원 수준을 뛰어넘어 2009년 3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을 경신하면서, 기업의 경영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

<2026년 상반기 부산기업의 대내외 리스크 요인>



- 지역기업 88.1%는 ‘상반기 투자계획 변함없음’
  - 연초 계획한 투자계획에 대해선 ‘변함없음’(88.1%), ‘연초계획 대비 축소·지연’(11.9%) 인 것으로 나타남

3) 원/달러 환율 종가기준, 한국은행 참조

- 투자계획 '축소·지연'의 이유로는 '에너지·원자재 등 생산비용 상승'(63.3%), '수요 등 시장상황 악화'(20.0%), '자금조달 여건 악화'(10.0%), '관세·전쟁 등 통상환경 변화'(6.7%) 등의 순
- 지역기업의 상반기 투자계획은 연초 대비 대체로 변함없으나,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생산비용 상승과 시장수요 감소를 부담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

〈상반기 투자계획 변화 및 투자계획 축소·지연 요인〉

